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금융의 사회적 역할 충실히 수행”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화상 그룹경영회의에서 “고객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대출 유예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등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청와대 광장서 피켓시위

“매출 제로 상태로 1년 전더...생존권 보장하라”

신용대출 확대·자가격리 완화 등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 사항 발표 여행업 유지 업체 전체 74% 불과 “많은 여행사 대표들, 일용직 전전” 문제부 “여행업 불만, 반영 노력”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가운데)이 2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년여를 ‘매출 제로’ 상태로 버텨온 여행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재난지원금의 차별없는 지원 등 정부에 대한 5개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여행업계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진짜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이제는 생존절벽, 생계절벽에 이르렀습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인 22일 오전의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광장.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광장에 잔뜩 굳은 표정의 여행업계 대표들이 모였다. 그들의 손에는 ‘1년간 특별여행주의보, 매일 국내여행 자제, 여행업 생태계 무너진다’, ‘여행업도 집합금지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오창희(한국여행업협회장)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산업 생태계 붕괴의 위기감을 느끼는 여행업계가 생존투쟁을 하겠다며 만든 조직이다.

비대위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법 제정 때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직원 4대 보험금 감면(또는 유예), 자가격리 14일 기준 완화 및 합리적 기준 설정,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그리고 26일까지 분수대 광장에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피켓시위를 실시한다.

오창희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매출 제로의 상태로 1년의 시간을 직원들과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며 “많은 여행사 대표들이 일용직을 전전하고 빚더미로 신용 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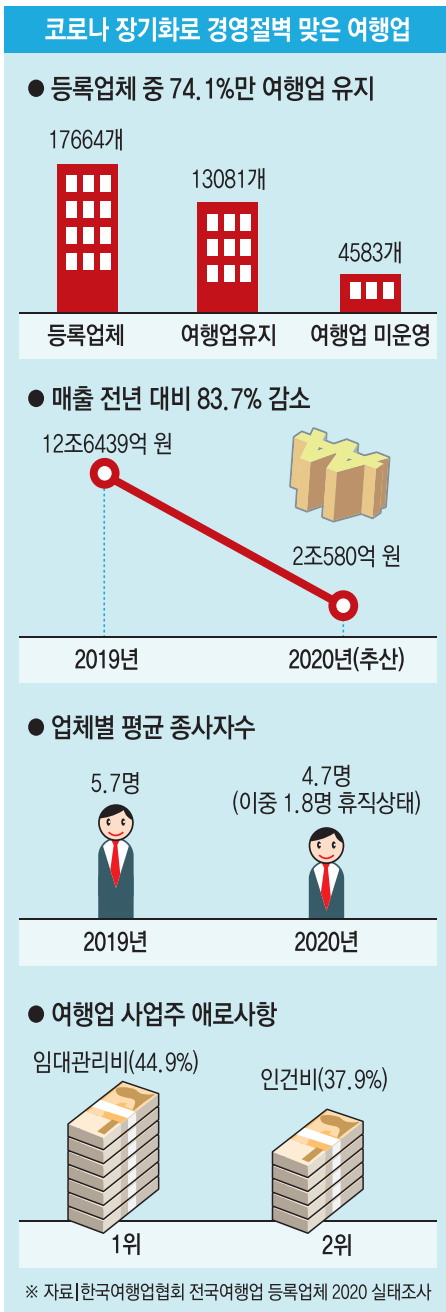
여행업협회가 지난해 10월 전국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업계의 상황은 암울하다. 전체 1만7664개의 여행업 등록업체 중 영업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업 자체를 유지하는 업체는 1만 3081개로 전체의 74.1%에 불과했다. 매출 감소도 심각해 2019년 12조6439억 원이던 것이 2020년에는 2조 580억 원으로 급감했다. 전년 대비 무려 83.7%, 10조 5859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그나마 세계적 여행교류 중단 직전인 2월 말까지의 영업실적이 반영된 수치로 사실상 지난해 10개월 간 대부분 업체가 매출액이 없는 영업중단 상황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별 종사자도 평균 4.7명으로 줄어 2019년과 비교하면 휴직자를 포함해 4만8000명 이상이 휴직 또는 실직 상태다.

실제로 업계 1위인 하나투어의 경우 전체 직원 2300여 명 중 10% 수준인 200~300명 정도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 직원이 휴직상태다.

특히 여행업계는 이처럼 절박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업계 현실을 너무 외면한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비대위 위원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섭 여행14 대표는 “1년 내내 해외출입국자 자격리 14일, 국내여행 자제를 말하고는 정작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집합금지를 행정명령으로 내린 적이 없고 자제 권고였으며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으라 한다”며 “왜 똑같은 고통을 겪는데도 단지 행정처분이 아니었다고 홀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여행업계가 대정부 시위까지 나서는데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계의 주장과 불만은 다양한 경로로 확인하고 있고 많은 부분 공감해 최대한 반영하려 애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재난지원금의 집합금지 업종 수준 지원이나 자가격리 14일 완화



등은 재정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데, 업계의 목소리가 잘 전달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광진흥기금의 신용대출이나 추가재원 마련도 수요가 많을 경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쿠팡 잡아라”...온라인 쇼핑 물류전쟁 11번가, 근거리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 250억 투자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들의 물류 전쟁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커머스 기업들이 빠르고 정확한 상품 배송을 위해 물류 관련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영향력을 키워 미국 뉴욕 증시 상장까지 추진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았에 따른 전략으로 보인다.

먼저 11번가의 행보가 눈에 띈다. 11번가는 근거리 물류 정보기술(IT) 플랫폼 스타트업 바로고에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주 인수로 약 7.2%의 지분을 획득, 3대 주주가 된다. 바로고는 이륜 배달대행시장 선도업체로 전국 1000여 개의 허브(지사), 5만4000여 명의 등록 라이더, 10만여 명의 등록 상점주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거래액(배달한 상품 가격의 총합)은 2조 9165억 원으로, 2019년보다 166% 증가했다. 11번가는 근거리 물류망과 도심 거점 물류 등에 기반한 시너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11번가는 앞서 지난해 말 우정사업본부와도 유통·물류 간 협력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상반기 중 우체국 물류센터를 활용한 풀필먼트(주문에 맞춰 포장, 배송까지 이어지는 통합 물류관리) 서비스로 자정까지 주문된 상품에 대한 익일 배송을 선보일 예정이다.

플랫폼 강자 네이버와 물류 기업 CJ대한통운의 협력도 눈여겨 볼 만하다. 양사는 3000억 원의 상호 지분을 교환하고 물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오늘도 착’을 포함한 빠른 배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KT&G,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 돕는다



KT&G(사장 백복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생애주기별 임

직원 케어 프로그램인 ‘가화만사성’(사진)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원한다.

우선 3월 입학 시즌을 맞아 임직원들의 초·중·고 입학 자녀들에게 CEO 축하카드와 꽃바구니를 전달한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연중 축하 꽃바구니를 선물하고 있으며, 가정의 달 5월에는 사전에 신청한 직원들 중 200여 명을 선발해 임직원들이 가족에게 작성한 편지와 함께 꽃바구니를 전달할 계획이다. ‘KT&G 상상마당 부산’ 1층 라운지에 ‘상상사계’라는 테마로 ‘도심속 작은 정원’을 조성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농작물 재배 방법 등을 소개하고 모종과 화분 나눠주기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정관장, 어린이 장건강 위한 유산균 출시



KGC인삼공사 정관장이 어린이 장건강을 위한 ‘홍이장균 키즈랩 프로바이오틱스’(사진)를 출시했다. 어린이 연구소를 뜻하는 키즈랩과 장건강 소재인 프로바이오틱스의 합성어로 유

산균을 과학적인 포뮬러 방식으로 설계한 맞춤형 건강 기능식품이다. ‘홍삼을 이용한 유산균 배양 특허 공법’ 기술을 적용했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 7종을 균형있게 배합했다. 출시 기념으로 3월 14일까지 ‘7000명 쏜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관장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7000명을 추첨해 홍이장균 키즈랩 프로바이오틱스(2개월분)를 증정한다.

부고

▲김은숙 씨 별세=김정우(조달청장·전 국회의원)·미나·도현(스포츠동아 산업경제부 기자·부장) 모친상, 박대우(서울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빙모상, 광미경·권영미 시모상=2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02-2258-5925

“지난해 이자 1조원”...개미들, 증권사 배만 불렀다

개인 신용거래 이자 2019년 대비 33.4% 증가

증권사들이 지난해 이자로만 약 1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거래를 하는 ‘빚투’가 급증하면서 신용융자거래에 따른 이자 수익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1일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한 2020년 실적에 따르면, 국내 57개 증권사가 지난해 개인의 신용융자거래로 번 이자는 9970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7473억 원보다 33.4%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 시작된 2009년 이래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치는 2018년 8485억 원이었다.

신용융자거래는 개인들이 증권사로부터 주식매수 자금을 빌려 거래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빌려준 대금에 이자를 받는다.

개인들의 ‘빚투’는 지난해 크게 늘었다. 2018년 하루 평균 11조1205억 원이었던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2019년 9조6787억 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 13조1464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9년 말 9조 원대였던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 19조4500억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증권사별 이자수입을 보면 미래에셋대우(1515억 원), 키움증권(1479억 원), 삼성증권(1409억 원), NH투자증권(1241억 원) 등이 1000억 원을 넘었다.

올해 들어서는 더욱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월

최근 3년간 증권사 신용융자거래 이자수입 및 잔고 추이

연도	신용거래 이자	증감률	평균 신용 잔고
2020년	9970억원	33.4%	13조1464억원
2019년	7473억원	-11.9%	9조6787억원
2018년	8485억원	34.0%	11조1205억원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 2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18일에는 21조926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2조50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국내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5조664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조7173억 원보다 108.4% 증가했다. ‘서학개미’ 열풍에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5446억 원에 달해 2019년 1634억 원보다 233.3% 급증했다. 정용윤 기자 sadzoo@donga.com

“내년 비트코인 1000만원 벌면 150만원 세금”

차익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이다.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격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 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과세를 앞두고 일부 가상 자산 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청원을 올리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용윤 기자